SK그룹, 중국에 EV용 배터리 공급

SK차이나, 베이징자동차와 MOU 체결 … 다임러·현대자동차 이어 호조

SK그룹이 중국에 전기자동차(EV)용 배터리 공급을 추진한다.

SK그룹은 중국 베이징자동차그룹(BAIC)과 국내 CT&T가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합작기업에 저속 전기자동차용 배터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4월1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SK그룹 중국통합법인 SK차이나의 박상훈 에너지 CIC 사장, 예쩡마오 베이징자동차그룹부총경리, 이영기 CT&T 대표 등은 4월1일 오후 베이징에서 배터리 공급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SK그룹 관계자는 “합작기업의 전기자동차 프로젝트의 구체적 투자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 배터리 공급물량 등은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SK에너지가 이미 다임러그룹의 하이브리드 상용차와 현대자동차의 전기자동차 프로젝트 등에 배터리를 공급하기로 해 배터리 사업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4/01>